

# 일본 국제수산 월간동향

2024. 02



한국원양산업협회

KOFCC 해외수산협력센터

## 목 차

1. 일본, 2023년 국내 오징어잡이 최저 갱신 3
2. 한일 협정 교섭 재개를 목표로 원선어협과 현지 조합이 서명 4
3. 상어지느러미 제품 규제, 상어 보호 노력에 역효과 가능성 5

- JF전어련이 정리한 2023년 신선제품, 냉동제품을 포함한 일본의 오징어 물량이 전년대비 30% 감소한 1만 5548톤으로 통계 되었음
  - 기록적으로 오징어잡이가 적었던 2022년의 수치보다 더 밑돌아, 2만 톤 경계선이 붕괴, 사상 최저를 갱신함
    - 신선 제품은 22% 감소한 1만 3847톤, 냉동은 62% 감소한 1700톤이었음
  - 수량 감소에 따라, 킬로 당 평균 단가는 상승, 신선은 21% 상승한 950엔 (한화 약 8,400원), 냉동은 48% 상승한 1,581엔 (한화 약 14,000원)이었음
  - 신선제품은 홋카이도에서 43% 감소한 3075톤이, 아키타-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지역에서는 59% 감소한 2376톤이 되었고, 주요항인 이시카와는 82% 감소해 464톤에 머물렀음
  - 반면, 산리쿠 지역은 32% 증가해 7168톤, 큐슈 지역은 16% 증가해 1228톤을 기록했음
    - 산리쿠와 큐슈 지역에서 오징어의 물량이 증가했으나, 홋카이도와 아키타-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지역의 감소를 보충할 정도는 되지 않음
  - 냉동제품은 홋카이도에서 42% 감소한 227톤, 아오모리현 하치노헤에서 64% 감소한 544톤, 아키타-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 지역에서도 64% 감소한 897톤이었음. 그중 이시카와는 65% 감소해 총 719톤이었음
  - 2023년 12월의 일본 내 오징어 물량은 전년 같은 달 대비 43% 감소해 715톤이 되었음. 그중 신선 제품은 22% 감소로 629톤이 되었고, 냉동제품은 76% 감소한 122톤이 되었음

※ 출처: 미나토신문<sup>1)</sup>

1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0403> ('24년 02월 23일 검색)

- 후쿠오카를 거점으로 하는 일본 원양선망어협이 한일어업협정의 협상 재개를 목표로 한국의 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의정서에 서명함
  - 양 조합은 향후 한일 권망어업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 상호 입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여 교섭 재개를 목표로 하고 있음
    - 협정은 양국이 서로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기 위한 협정으로, 상호 입어, 불법조업 대책, 잠정수역의 자원관리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짐
    - 2016년 협상이 결렬된 후, 현재까지 타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
  - 원양선망어협과 대형선망수협은 협상 재개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였고, 2023년에 한국에서 합동협의회를 개최해, 의정서에 서명함
  - 그러나, 일본의 저인망 어업자와 한국의 계장 어업자간의 문제와 한국어선의 영향을 받게 될 일본의 연안 어업자의 반대 등으로 인해 양 정부의 협상이 난항임
  - 원양선망어협은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며 상호 입어 재개시에 대해 자세히 검토할 방침이며, 양 정부에 협상 타결을 촉구하기 위해 신중하게 임할 뜻을 보임

※ 출처: 미나토 신문<sup>2)</sup>

2) <https://www.minato-yamaguchi.co.jp/minato/e-minato/articles/140559> ('24년 02월 27일 검색)

### □ 피닝이 금지됨에 따라 상어의 사망률이 증가했을 가능성 존재

\* 피닝(Finping): 상어에게서 지느러미만 잘라내고 나머지는 바다에 버리는 어업의 한 형태

- 피닝은 잔인하고 낭비가 많다는 지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금지되어있으나, 이 규제가 전반적인 상어의 사망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연구가 발표됨
  - 연구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세계 각국의 수역에서 어획된 상어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함
- 연구에 따르면, 피닝 금지가 확산되었음에도, 연안 어업에 의한 상어 폐사율이 증가하고 있어, 연간 약 7600~8000만 마리의 상어가 폐사하고 있음
- 연구는 피닝이 금지된 결과, 어업인들이 상어를 통째로 잡을 수밖에 없게 되고, 이로 인해 새로운 상어 상품 시장이 생겨났을 가능성을 지적했음
  - 규제가 불필요한 어업관행에 대처했으나, 새로운 시장 창출로 인해 결과적으로 상어의 사망률이 상승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
-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상어 보호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하고 지역 차원의 노력과 국제적인 지원이 요구됨. 특히 상어 폐사율에 주요 원인이 연안 지역의 영세어민인 나라에서는 그 대책을 마련해야함

※ 출처: 포브스 재팬<sup>3)</sup>

3) <https://news.yahoo.co.jp/articles/8e9828ecb54159c0a2f71e66865df43e7cf19d07?page=2> ('24년 02월 27일 검색)